

#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Dental Health Knowledge and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arents

남설희, 김지선, 방라영, 배지현, 이경주, 이다연, 홍수진, 정미애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Seoul-Hee Nam(miss4228@naver.com), Ji-Sun Kim(olp4532@naver.com),  
La-Young Bang(layoung3151@naver.com), Ji-Hyun Bae(qowlgus3262@hanmail.net),  
Kyung-Joo Lee(kyungjoo2@naver.com), Da-Yeon Lee(q10043457@hanmail.net),  
Soo-Jin Hong(tnwns941114@naver.com), Mi-Ae Jeong(teeth2080@kangwon.ac.kr)

### 요약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 대한 지식과 인식 및 태도는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를 통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천하는 구강보건교육 시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수행했다. 데이터 수집은 구글 앱을 통한 설문지를 자가기입방식으로 확보하였으며, 분석은 SPSS Ver. 19.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치위생학과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 학부모로 총 200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은 고학년일수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평균은 고학년의 학부모가 저학년의 학부모보다 구강건강 지식정도 및 인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와 영향 모두 고학년 학부모에서 저학년 학부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그들의 지식과 습관화된 행동이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구강건강인식 | 구강건강지식 | 치위생 | 학부모 | 구강보건교육 |

### Abstract

Oral health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parent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s giving a mutual influence over their children enrolled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Therefore, the university is a situation that requires students to oral health education that can be caused by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 rather than a simple knowledge transfe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oral health knowledge and awarenes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parents. Research method was used to survey the SPSS v19.0 through the Google study has used a total of 200 in the final analysis to the National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the lower grades (first grade) and seniors (fourth grade), the student's parent. The results child's impact as a student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is older group were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the younger group. Oral Health Knowledge average of the parents of the grade your child is younger parents, older parents, cognitive average younger parents, older parents, education, whether through a child younger parents older parents, the impact is younger parents was higher in the upper grades to both parents of older parents. Therefore, the older the child the more it can be seen that grade their knowledge and habitual behavior affects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ir parents.

■ keyword : | Dental Health Awareness | Dental Health Knowledge | Dental Hygiene | Parents | Oral Health Education |

## I. 서론

건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신체의 상태로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으나 세계보건기구(WHO) 현장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허약하지 않은 신체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말한다[1].

구강이란 기능적으로는 소화기관의 일부로서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의 일부를 담당한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의학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왔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

구강보건이란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병 예방법과 구강건강 관리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일부로 인식된다[3].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의 유지, 증진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여 구강건강과 더불어 전신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4].

치위생학과는 21세기형 치과위생사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4년간의 교육과정에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및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해 치과의사와 함께 협업하는 구강진료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예방치과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강건강 관리인력이다[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사회 활동량이 많은 연령대로

흡연, 음주, 각종 스트레스 등 건강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노화가 시작되며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연령층에 비해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 그러므로 부모에게도 적절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제공자로서 주변인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실천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강질환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숙지된 지식은 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습관화되어 주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라 판단되는 부모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의 행동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치위생학 학부모의 지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Lang[8]는 덴마크 치과대학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및 치주건강의 실태에 대한 횡단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은 고학년이 신입생보다 구강건강이 더 좋았다고 연구 보고한바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은 예비구강보건교육자로서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보건 지식 및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이 두 대상자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4년제 치위생학과 저학년 학부모와 고학년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인식을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알고자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만성질

환에서 치주질환이 3위, 치아우식증이 8위로 치과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강병 예방을 위해선 구강건강 증진행위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 이 실천행위가 있기 위해선 구강건강지식 및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구강건강지식 및 긍정적 인식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진다.

### 1.1 치위생학과 구강보건교육과의 관계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예비 치과위생사이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해 치과의사와 함께 협업하는 구강진료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예방치과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강건강관리인력[5]으로 구강보건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치위생학생은 치위생학과의 4년간 교육과정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자의 자질을 갖추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 1.2 치위생학생의 학부모와 구강보건교육과의 관계

치위생학생의 학부모는 성인이다. 성인은 사회 활동량이 많은 연령대로 흡연, 음주, 각종 스트레스 등 건강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노화가 시작되며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연령층에 비해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 그러므로 부모에게도 적절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 1.3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보건적 관계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제공자로서 주변인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실천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강질환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숙지된 지식은 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습관화되어 주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울 것이라 판단되는 부모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의 행동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치위

생학 학부모의 지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 앞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주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치위생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년이 학부모의 구강보건지식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강보건교육이라는 매개 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치위생학생의 학년, 구강보건교육이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

### 2. 연구대상

2016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전국 치위생학과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학생 학부모 215명을 대상으로 구글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여 자료처리가 부적합한 15부를 제외한 총 20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구강보건의식행태

원재희[9], 김혜란[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구강보건의식행태 등 총 5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2 구강건강지식

치아우식증 4문항, 치주질환 4문항, 스케일링 4문항, 잇솔질 4문항, 구강위생용품 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총 20개의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하여 대상자가 기입한 답을 분석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으며, 정답률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 3.3 구강건강인식

구강건강 인지정도 5문항, 잇솔질 6문항, 구강위생용품 1문항, 스케일링 2문항, 흡연 1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인식률을 알아보았다. 자기기입형 설문지로 구체적인 문항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관계), 연령, 학력(교육정도), 직업, 자녀의 학년	5문항
구강보건의식 행태	주관적 건강 상태	구강건강 인지정도	3문항
		자신의 구강건강의 문제	2문항
		구강건강의 문제점의 원인	1문항
		구강건강을 위한 수행사항	4문항
	구강보건 의식 행태	치과방문정도	1문항
		치석제거 수행정도 및 동기	1문항
구강건강 지식 습득	구강건강지식 정보 습득	1문항	
	자녀의 영향 정도	2문항	
구강건강지식		치아우식증 4문항	20문항
		치주질환 4문항	
		스케일링 4문항	
		잇솔질 4문항	
		구강위생용품 4문항	
구강건강인식		구강건강 인지정도 5문항	15문항
		잇솔질 6문항	
		구강위생용품 1문항	
		스케일링 2문항	
		흡연 1문항	

###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ver. 19.0(SPSS GmbH, Munich Germany)이

었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 의식형태는 빈도분석(Frequency)을 사용하여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인식은 빈도분석(Frequency)을 시행하여 빈도를 산출한 결과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s)의 방법으로 자녀의 학년과 교차시켜 관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학생 학부모 200명의 구강건강지식의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200명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일반적 특성

특성	세부항목	빈도(%)
자녀와의 관계	부	73(36.5)
	모	127(63.5)
연령	35세 미만	2(1.0)
	35세~45세 미만	20(10.0)
	45세~55세 미만	117(58.5)
	55세~65세 미만	59(29.5)
	65세 이상	2(1.0)
학력	초등학교 졸업	5(2.5)
	중학교 졸업	10(5.0)
	고등학교 졸업	102(51.0)
	대학교 졸업	81(40.5)
	대학원 졸업 이상	2(1.0)
직업	사무, 관리직	38(19.0)
	판매, 생산, 서비스직	44(22.0)
	전문직	28(14.0)
	자영업	27(13.5)
	주부	60(30.0)
	기타	3(1.5)
자녀의 학년	저학년(1학년)	100(50.0)
	고학년(4학년)	100(50.0)

자녀와의 관계 분포는 ‘부(父)’ 36.5%, ‘모(母)’ 63.5%로 ‘모(母)’의 참여도가 높았고, 연령층은 ‘45세~55세 미만’이 58.5%로 가장 많았고, ‘55세~65세 미만’ 29.5%, ‘35세~45세 미만’ 10%, ‘35세 미만’, ‘65세 이상’이 1%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학교 졸업’이 40.5%, ‘중학교 졸업’ 5%, ‘초등학교 졸업’ 2.5%, ‘대학원 졸업 이상’ 1%였고, 직업은 ‘주부’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생산, 서비스직’이 22%, ‘사무, 관리직’ 19%, ‘전문직’ 14%, ‘자영업’ 13.5%, ‘기타’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은 저학년(1학년) 50%, 고학년(4학년) 50%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 2.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도

조사대상자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지식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도

구분	정답	자녀의 학년	빈도(%)		P
			정답률	오답률	
충치는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	예	저학년	64(32.0)	36(18.0)	.000*
		고학년	91(45.5)	9(4.5)	
충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아니오	저학년	93(46.5)	7(3.5)	.235
		고학년	95(47.5)	5(2.5)	
유치(젓니)의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오	저학년	83(41.5)	17(8.5)	.000*
		고학년	67(33.5)	33(16.5)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아니오	저학년	62(31.0)	38(19.0)	.081
		고학년	68(34.0)	32(16.0)	
잇솔질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에 걸렸다는 표시이다	예	저학년	74(37.0)	26(13.0)	.000*
		고학년	92(46.0)	8(4.0)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만으로도 예방이 된다	아니오	저학년	74(37.0)	26(13.0)	.000*
		고학년	87(43.5)	13(6.5)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사들, 멘타를 같은 잇몸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아니오	저학년	74(37.0)	26(13.0)	.000*
		고학년	59(29.5)	41(20.5)	
치주질환은 스케일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예	저학년	68(34.0)	32(16.0)	.002*
		고학년	78(39.0)	22(11.0)	
연 1회 건강보험급여 스케일링 시, 발생비용은 무료이다	아니오	저학년	59(29.5)	41(20.5)	.002*
		고학년	70(35.0)	30(15.0)	

스케일링을 하면 구취가 감소한다	예	저학년	57(28.5)	43(21.5)	.000*
		고학년	73(36.5)	27(13.5)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으면 치아가 작아진다	아니오	저학년	80(40.0)	20(10.0)	.728
		고학년	79(39.5)	21(10.5)	
스케일링을 하면 항상 출혈이 동반된다	아니오	저학년	62(31.0)	38(19.0)	.016*
		고학년	51(25.5)	49(24.5)	
잇솔질은 식 후 3분 이내에 해야 한다	예	저학년	76(38.0)	24(12.0)	.000*
		고학년	93(46.5)	7(3.5)	
잇솔질은 옆으로 치아와 잇몸을 힘껏 닦는다	아니오	저학년	78(39.0)	22(11.0)	.003*
		고학년	86(43.0)	14(7.0)	
잇솔모는 딱딱한 형태가 치아에 좋다	아니오	저학년	85(42.5)	15(7.5)	.009*
		고학년	91(45.5)	9(4.5)	
잇솔은 잇솔모가 벌어지면 교환하는 것이 올바르다	예	저학년	80(40.0)	20(10.0)	.024*
		고학년	86(43.0)	14(7.0)	
잇솔은 그늘진 곳이 보관하는 것이 올바르다	아니오	저학년	78(39.0)	22(11.0)	.075
		고학년	83(41.5)	17(8.5)	
구강위생용품만으로도 구강관리에 효과가 있다	아니오	저학년	32(16.1)	67(33.7)	.279
		고학년	36(18.1)	64(32.2)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치간 사이가 벌어진다	아니오	저학년	69(34.5)	31(15.5)	.120
		고학년	74(37.0)	26(13.0)	
허클러는 구취예방에 효과적이다	예	저학년	91(45.5)	9(4.5)	.026*
		고학년	95(47.5)	5(2.5)	

대부분의 문항에서 구강건강지식 정답률이 고학년 학부모에서 높게 나타났고 ‘충치는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32%, 고학년 학부모는 45.5%가 옳게 응답하여 두 학년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정답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충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46.5%, 고학년 학부모는 47.5%로 두 학년 학부모 모두 구강건강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구강위생용품만으로도 구강관리에 효과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16.1%, 고학년 학부모는 18.0%로 두 학년 학부모 모두 구강건강지식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

반면에 ‘유치(젓니)의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41.5%, 고학년 학부모는 33.5%의 정답률로 고학년 학부모보다 저학년 학부모 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그 외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사돌, 덴타돌 같은 잇몸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37%, 고학년 학부모는 29.5%의 정답률을 보이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으면 치아가 작아진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40%, 고학년 학부모는 39.5%의 정답률을 보이고 ‘스케일링을 하면 항시 출혈이 동반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저학년 학부모는 31%, 고학년 학부모는 25.5%의 정답률을 보여 저학년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결과도 보였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 3.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인식도

조사대상자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인식도

문항	자녀의 학년	빈도(%)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평소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	저학년	9(4.5)	59(29.5)	31(15.5)	-	1(0.5)	.388
	고학년	21(10.5)	49(24.5)	28(14.0)	2(1.0)	-	
구강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학년	22(11.0)	66(33.0)	12(6.0)	-	-	.067
	고학년	34(17.0)	60(30.0)	6(3.0)	-	-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저학년	21(10.5)	65(32.5)	14(7.0)	-	-	.001*
	고학년	39(19.5)	47(23.5)	14(7.0)	-	-	
구강건강의 상태는 다른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학년	25(12.6)	61(30.7)	11(5.5)	3(1.5)	-	.002*
	고학년	36(18.1)	38(19.1)	15(7.5)	10(5.0)	-	
구강건강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저학년	23(11.5)	63(31.5)	12(6.0)	2(1.0)	-	.000*
	고학년	38(19.0)	39(19.5)	15(7.5)	8(4.0)	-	

올바른 잇솔질 방법은 잇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저학년	23(11.5)	66(33.0)	11(5.5)	-	-	.001*
	고학년	38(19.0)	47(23.5)	15(7.5)	-	-	
구강건강에 있어서 올바른 잇솔질 방법은 칫솔과 치약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다.	저학년	25(12.5)	63(31.5)	12(6.0)	-	-	.007*
	고학년	27(13.5)	47(23.5)	19(9.5)	7(3.5)	-	
잇솔질은 식후 3분 이내에 해야 한다.	저학년	20(10.0)	54(27.0)	22(11.0)	4(2.0)	-	.990
	고학년	38(19.0)	52(26.0)	10(5.0)	-	-	
식후 외에도 자기 전에 잇솔질을 해야 한다.	저학년	22(11.0)	61(30.5)	14(7.0)	3(1.5)	-	.314
	고학년	26(13.0)	54(27.0)	17(8.5)	1(0.5)	2(1.0)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잇솔질을 해야 한다.	저학년	10(5.0)	55(27.5)	26(13.0)	8(4.0)	1(0.5)	.000*
	고학년	17(8.5)	38(19.0)	24(12.0)	13(6.5)	8(4.0)	
잇솔질을 할 때 혀도 함께 닦아야 한다.	저학년	32(16.0)	57(28.5)	9(4.5)	2(1.0)	-	.007*
	고학년	58(29.0)	33(16.5)	9(4.5)	-	-	
잇솔 외에도 구강위생용품(치실, 기공용액 등)이 필요하다.	저학년	17(8.5)	64(32.2)	18(9.0)	1(0.5)	-	.159
	고학년	20(10.1)	54(27.1)	19(9.5)	4(2.0)	2(1.0)	
구강건강을 위해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저학년	18(9.0)	61(30.5)	18(9.0)	3(1.5)	-	.128
	고학년	29(14.5)	46(23.0)	23(11.5)	2(1.0)	-	
스케일링은 치아를 손상시킨다.	저학년	4(2.0)	15(7.5)	23(11.5)	40(20.0)	18(9.0)	.665
	고학년	2(1.0)	10(5.0)	28(14.0)	38(19.0)	22(11.0)	
흡연은 구강건강에 해롭다.	저학년	49(24.5)	41(20.5)	7(3.5)	2(1.0)	1(0.5)	.043*
	고학년	69(34.5)	24(12.0)	7(3.5)	-	-	

대부분의 문항에서 자녀의 학년과 상관없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인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

만 잇솔질을 할 때 혀도 함께 닦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16.0%, ‘그렇다’로 28.5%, ‘보통이다’로 4.5%, ‘그렇지 않다’로 1.0%가 응답하여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29.0%, ‘그렇다’로 16.5%, ‘보통이다’로 4.5%가 응답하여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 문항에 대해서는 고학년 학부모가 저학년 학부모보다 인식이 잘 되어 있었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흡연은 구강건강에 해로운가라는 질문에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24.5%, ‘그렇다’로 20.5%, ‘보통이다’로 3.5%, ‘그렇지 않다’로 1.0%, ‘매우 그렇지 않다’로 0.5%가 응답하였고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34.5%, ‘그렇다’로 12.0%, ‘보통이다’로 3.5%가 응답하여 두 학년의 학부모 모두 잘 인식되어 있었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반면에 거짓진술 문항인 스케일링은 치아를 손상시키는가라는 질문에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2.0%, ‘그렇다’로 7.5%, ‘보통이다’로 11.5%, ‘그렇지 않다’로 20.0%, ‘매우 그렇지 않다’로 9.0%가 응답하였고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1.0%, ‘그렇다’로 5.0%, ‘보통이다’로 14.0%, ‘그렇지 않다’로 19.0%, ‘매우 그렇지 않다’로 11.0%가 응답하였으며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잇솔질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5.0%, ‘그렇다’로 27.5%, ‘보통이다’로 13.0%, ‘그렇지 않다’로 4.0%, ‘매우 그렇지 않다’로 0.5%가 응답하였고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8.5%, ‘그렇다’로 19.0%, ‘보통이다’로 12.0%, ‘그렇지 않다’로 6.5%, ‘매우 그렇지 않다’로 4.0%가 응답하여 두 학년의 학부모 모두 다른 문항에 비하여 잘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 4.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및 영향도

조사대상자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및 영향도는 [Table 5]와 같다.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의 문항은 ‘예’에 값 1을 부여

하였고, ‘아니오’에 값 2를 부여하여,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예’로 30.5%, ‘아니오’로 19.5%가 응답하였으며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예’로 46.0%, ‘아니오’로 4.0%가 응답하여 고학년의 학부모에서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은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13.5%, ‘그렇다’로 11.0%, ‘보통이다’로 18.0%, ‘그렇지 않다’로 4.5%, ‘매우 그렇지 않다’로 3.0%가 응답하였고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16.5%, ‘그렇다’로 24.0%, ‘보통이다’로 6.5%, ‘그렇지 않다’로 2.0%, ‘매우 그렇지 않다’로 1.0%가 응답하여 고학년의 학부모에서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5.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및 영향도

	빈도(%)			전체
	자녀의 학년			
	저학년	고학년		
전체	100(50.0)	100(50.0)	200(100.0)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예	61(30.5)	92(46.0)	153(76.5)
	아니오	39(19.5)	8(4.0)	47(23.5)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				
	매우 그렇다	27(13.5)	33(16.5)	60(30.0)
	그렇다	22(11.0)	48(24.0)	70(35.0)
	보통이다	36(18.0)	13(6.5)	49(24.5)
	그렇지 않다	9(4.5)	4(2.0)	13(6.5)
	매우 그렇지 않다	6(3.0)	2(1.0)	8(4.0)

#### 5.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

자녀의 학년	평균±표준편차	P'
저학년(1학년)	1.39±0.490	.000
고학년(4학년)	1.08±0.273	.000

\*independent samples t-test에 의함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는 저학년(1학년)군이 1.39±0.490로 고학년(4학년)군 1.08±0.273보다 높았지

만, 문항 ‘예’에 값 1을 부여하였고, 문항 ‘아니오’에 값 2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타난 고학년(4학년)군이 저학년(1학년)군 보다 자녀를 통한 교육여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녀를 통한 교육 여부는 저학년(1학년)군이  $1.39 \pm 0.490$ 로 고학년(4학년)군  $1.08 \pm 0.27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 6.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

자녀의 학년에 따른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은 [그림 2]와 같다.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은 고학년(4학년)군이  $4.06 \pm 0.897$ 로 저학년(1학년)군  $3.55 \pm 1.158$ 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은 고학년(4학년)군이  $4.06 \pm 0.897$ 로 저학년(1학년)군  $3.55 \pm 1.15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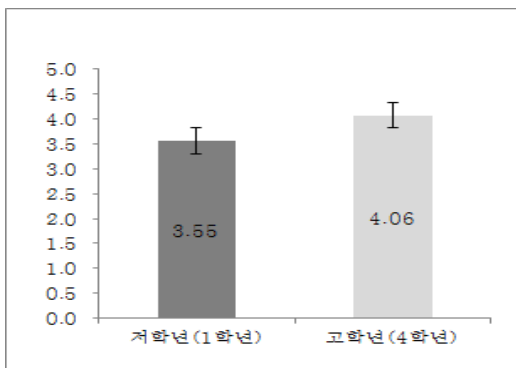


그림 2. 학년에 따른 자녀가 치위생학과에 재학함에 따른 영향

### 7.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평균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 지식평균점수는 [그림 3]과 같다.

구강건강 지식평균점수로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3.99%,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4.07%로 자녀의 학년에 따라 고학년 학부모가 구강건강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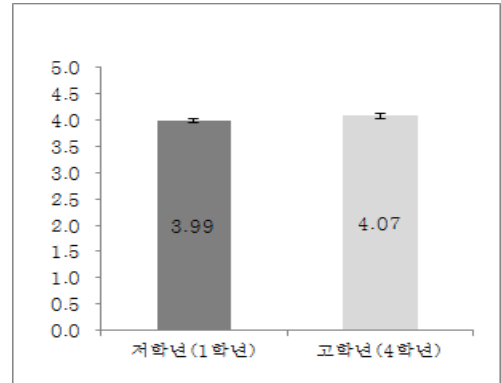


그림 3.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평균

### 8.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인식 평균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 인식평균점수는 [그림 4]와 같다.

구강건강 인식평균점수로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0.71%,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0.77%로 자녀의 학년에 따라 고학년 학부모의 구강건강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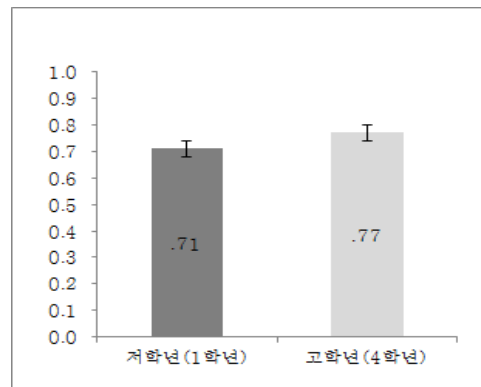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인식 평균

## V. 고 찰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5] 작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환자들이



은 자신들의 치아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방을 위한 행위에는 매우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치과 치료가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구강보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천을 보다 강조한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지식과 인식 정도의 증가를 포함하는 구강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단순히 치과 치료 시 협조의 업무에만 치중하지 않고 예방치과처치의 업무와 구강보건 교육의 업무에 중점적인 비율을 두는 역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위생사의 예방 교육자 배출을 목적으로 4년 과정의 치과위생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예비 예방교육자로서 우리나라 구강 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육자로서의 교육보다는 협조,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치중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교육을 통해 예비 예방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치위생학과 저학년(1학년)과 고학년(4학년) 학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행태에 관한 문항에서 본인의 삶에서 구강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미정[11]의 연구 결과에서도 중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구강건강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로 응답한 답변이 53%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가 47%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김[11]의 연구 결과에서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은 보통이 46.8%, 관심 있음이 46.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건강에 관한 관심도는 높으나 치과 방문과 관련한 문

항에서는 정기검진을 위한 방문(16%)보다 치료를 위한 방문 경험이 5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건강에 관한 관심도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 치과 방문의 목적은 예방보다는 치료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고학년(4학년) 학부모의 정답률이 저학년(1학년) 학부모의 정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고학년 학부모와 저학년 학부모의 인식도가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저학년 학부모에서는 평균 0.71%, 고학년 학부모에서는 평균 0.77%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치과지식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령은 '45세~55세 미만' 58.5%로 가장 많았고, '55세~65세 미만' 29.5%, '35세~45세 미만' 10%로 대부분의 연령이 성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8]의 연구에서 보면 성인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의 질문에서 '예'가 32.3%, '아니오'가 67.7%로 구강보건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교육기회가 없었음'이 66%, '관심이 없었음'이 19.0%, '시간이 없었음'이 9.2%, '필요성을 모르겠음'이 5.9%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성인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적으며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성인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예'가 88.9%, '아니오'가 11.1%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구강보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구강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현재 보다 더 배출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고[8]의 연구에서 보면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예'가 60.6%, '아니오'가 39.4%로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 미 실시 이유로 환경적 요인에는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64.45%, 개인적 요인에는 '구강보건교육을 원하는 대상이 없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 배출과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지식 및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대상의 수를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확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VI. 결론(Conclusions)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예비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주변인 중 제일 가깝다고 사료되는 그들의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치위생학과 저학년의 학부모와 고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지식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지식이 학부모의 구강건강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를 통한 교육여부는 고학년 학부모에서 저학년 학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의 구강관리의 도움정도(영향도)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고학년의 학부모가 저학년의 학부모보다 구강건강 지식정도 및 인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를 통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천하는 구강보건교육 시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 교육자로서의 치위생사 양성을 위해 치위생학과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정확한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구강보건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구강관리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함으로써 학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향후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보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성인에게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성인층에서 축적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으로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아상실을 예방하는 구강보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위생학과 학생은 예비 구강보건교육자로 치위생학과 학생의 주변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과 구강보건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이로써 치위생학과 학생의 주변인이 그 주변인 또 그의 주변인 이렇게 지역사회에까지 미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치위생학과 학부모의 지식 및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진료 협조,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치중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예방 위주의 교육자 역할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역할 확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B. W. Kang and K. S. Kim, *Preventive dentistry*, 군자출판사, 2014.
- [2] H. K. Kang, Y. S. Yoon, and J. H. Park, "Awareness of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 under treatments at initial and maintenance phase," *대한구강보건학회지*, Vol.3, No.3, pp.271-279, 2005.

- [3] Y. H. Jung, S. S. Bae, and J. H. Jang,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of middle students in some area", J Korean Soc School Health Edu, Vol.14, No.1, pp.49-60, 2013.
- [4] I. S. Kim, *Oral Health Education*, 고문사, pp.1-298, 2002.
- [5] Y. O. Nam, *Dental Hygieneolgy*, 청구문화사, 2007.
- [6] Y. J. Lee and G. J. Choi, "The Effect of Korean Adult's Mental Health On QOL -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mon Survey,"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1권, 제1호, p.322, 2010.
- [7] H. R. Park and S. J. Moon,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00-310, 2013.
- [8] N. P. Lang, "Oral hygiene and gingival health in Danish dental students and faculty,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제5권, 제5호, pp.42-237, 1977.
- [9] 원재희, 방문건강관리인력의 구강건강인식, 지식과 실천, 한양대학교, 2008.
- [10] 김혜란, 치과 내원 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인식, 실천, 인제대학교, 2011.
- [11] 김미정, 치과내원 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및 실천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2010.

저 자 소 개

남 설 희(Seoul-Hee Nam)

정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 졸업
- 2016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치과임상학, 세포생물학, 포괄치위생학

김 지 선(Ji-Sun Kim)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방 라 영(La-Young Bang)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배 지 현(Ji-Hyun Bae)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이 경 주(Kyung-Ju Lee)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이 다 연(Da-Yeon Lee)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홍 수 진(Soo-Jin Hong)

정회원



- 2013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 치위생

정 미 애(Mi-Ae Jeong)

종신회원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졸업  
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임상치과지원 등